

전진바이오팜, '2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 선정**▶ 경북대학교 와 함께 설치류 기피제 연구개발 착수**

<2022-04-25>전진바이오팜(주) (대표이사 이태훈,110020)이 '2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에 지난22일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22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산학연 Collabo R&D사업'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이 대학과 연구기관의 보유자원과 전문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력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 전진바이오팜은 천연식품효소생물 기반의 소재 연구 및 독성연구 관련 인프라를 갖춘 경북대학교(식품공학부, 이상한 교수)와 함께 설치류에 의한 케이블 피해예방을 위한 기피제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설치류에 의한 케이블(전력/통신/자동차) 손상으로 인해 화재, 통신두절 및 자동차부품 값증가 피해 등의 손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존에 설치류에 의한 케이블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독성이 강한 살서제(나라마이신, 사이클로헥사마이드) 및 피부·눈 등을 자극하는 기피제(캡사이신)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성물질 사용으로 생산수율이 저하되고 케이블을 생산 및 설치하는 작업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되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어 천연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설치류 기피소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현재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Markets and Markets' 의 시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살서제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조 3천억원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5.0%로 계산시 2021년 시장규모는 약 5조 7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국내 시장규모는 2019년 식약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방역용제제(살충제, 살서제)의 시장규모는 240억원, 2018년 기준 기피제 시장규모는 130억원으로 조사 되었다.

전진바이오팜은 2004년 설립 이래로 천연소재 및 제형기술을 바탕으로 기피제 관련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기피제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천연소재를 이용해 케이블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신규 소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신규 소재는 케이블(전선 및 통신케이블) 뿐만 아니라 포장재, 자동차 부품, 건축자재등 다양한 산업용품에 손쉽게 접목하여 확장이 가능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전진바이오팜 관계자는 "당사는 기피제 관련 천연소재라이브러리와 다양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산학연 Collabo R&D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방서케이블 전용 기피소재를 개발 상용화하여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문의

전진바이오팜☎ 문석준 차장 053-593-7192/ sjmoon@jjbio.co.kr